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16, 유언과 순교 Lit.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6회기 유언과 순교문학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경(pseudepigrapha)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유언문학이라 불리는 일련의 자료가 있는데 아마도 그 고전적인 예는 제가 잠시 풀어볼 열두 족장의 유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끝에 덧붙이자면, 나는 순교 문학의 예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시 우리는 위경이 창작된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온갖 종류의 박해를 겪고 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순교 문학은 이러한 위경사상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한 장르입니다. 우리의 고전적인 예 중 하나는 이사야의 순교라 불리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관찰한 내용과 이미 말한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전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시대의 의미를 탐구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경, 공동체, 주석, 연속성 등을 염두에 두십시오. 특히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전체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연구에서 다른 적용을 얻지 못한다면 실제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심오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은 참으로 기초입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이보다 풍부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 마지막에 이 말을 했지만, 우리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을 가져와 자신들의 경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시대의 일부인 개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검토에서 유언 문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동하여 우리의 레이더 화면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언 문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상할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정식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음, 좀 흥미롭네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 대해 언급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입니다. 이것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의 축복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들 각각은 이스라엘, 즉 임종한 야곱이 그들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예언적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적어도 열두 족장들의 유언에 있지만, 우리의 다른 유언 문헌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알려진 일부 인물,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유언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죽음이 가까워진 것으로 표현되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말을 할 것입니다. 윤리적 가르침과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진술과 관련됩니다. 이제 우리는 열두 족장들의 유언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 49장에 바로 나타나는 이름들 중 다음 세대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패턴입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저자에 따르면 그들 각자가 축복도 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공통된 특징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들을 요약했지만,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종 장면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49장을 모델로 한 임종 장면은 대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당신이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지침과 윤리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종의 예언적 진술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아들들에 관한 진술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의 전체 복합체와 그 일부인 구성 요소를 붙잡아 두십시오. 분명히, 이것이 말했듯이, 예언적인 부분 내에서 우리는 묵시적인 경향이 무엇이든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이다. 내가 말했듯이, 다른 성서 문헌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열두 족장 성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TTP라고 줄여서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 문헌, 열두 족장의 성서, 그리고 결국 레위로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대부분을 이미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의 일반적인 내용은 아마도 순서대로 야곱의 각 아들들의 마지막 발화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이 대표하는 대로 각자는 말할 것입니다. 레위는 특별히 존경받아야 하고 유다는 그들에게 특별한 영예와 축복과 찬양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왕이 나올 혈통인 유다, 다윗의 혈통, 그리고 레위는 물론 아론과 제사장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서의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 보존된 것으로 보이는 에녹 문헌과 달리 그것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슬라브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교회 청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히브리어 단편과 아람어로 된 열두 족장들의 유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는 이것이 광범위하고 많이 사용되고 많이 채택된 텍스트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날짜를 확인하기가 약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기원전 2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서 1장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 역시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열두 족장들의 성서를 연구할 때,

기독교적 보간으로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기독교 문서였다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다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은 하나의 제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텍스트에 기독교적 보간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텍스트 경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그들은 여러 장소에 나타납니다. 시므온의 유언장에는 이것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조금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취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시므온의 성서에 뭔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라고 훈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조각들을 꺼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의 유언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TL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에게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보라, 세상 말세에 네가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께 범할 불경건과 범법에서 내가 깨끗해졌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기원전 2세기의 진술은 아닙니다. 그들은 불경건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와께 속한 큰 재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불법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은 성전 휘장이 찢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단지 몇 개의 숫자일 뿐,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본문을 다루는 기독교인의 손을 통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열두 족장들의 유언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 언어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이미 살펴보았으며, 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 교육, 교육에 대한 좀 더 강한 강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족장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물론 윤리적인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덕과 그에 따른 생활에 초점을 맞춘 더 넓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와 조금 더 인터페이스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라는 지침으로서의 토라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 중 일부는 그리스 지혜 유형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해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단지 윤리적 가르침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경건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사치스럽고 감각적이며 금욕적인 종류의 권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권고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볼 수 있듯이 창세기 이야기에는 분명히 장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Levi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장식과 이 텍스트의 저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녹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에녹에 대한 열두 족장들의 유언장에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에녹 문학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유통되고 그것이 인용될 만큼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종의 현대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요즘 기독교 글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는 많이 언급됩니다. NT Wright는 많이 언급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인물이죠. 시므온의 성서, 레위의 성서, 유다의 성서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에녹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녹 문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르우벤 성서에는 문화의 특정 구성 요소가 여성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조금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문화적 배경이거나 적어도 문화적 배경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추종자들 사이에 여성을 두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에 반대하여 여성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읽게 될 종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충격을 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잠언 31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좋아, 하지만 이제 간다. 물론 이것은 르우벤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르우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무분별한 성적인 요소, 난잡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자가 여성에 대해 온갖 종류의 권고를 하고 여성과의 성관계에 참여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청중이나 저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누가 그것을 재정비할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거 알아요? 아마도 빌하의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힘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들은 치장을 통해 그를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책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눈빛으로 독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행위를 통해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잡는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일시 정지. 내 자녀들아, 음행을 피하라.

너희 아내와 딸들에게 명령하여 머리와 얼굴을 꾸미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홍수 이전에 관찰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여자들은 거인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자들이 그들에게 하늘에까지 닿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맥락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심해 왔던 문화적 맥락의 반영으로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창세기 르우벤 사건은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진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특별한 태도와는 매우 다릅니다. 주요 신학적 강조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다음 남은 시간 동안 레위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형적인 종말론적 주제 중 하나인 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녹 본문은 악의 기원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또한 이원론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은 오류의 영입니다.

복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4서를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 4서는 이 두 가지 성향을 꽤 많이 잡아냅니다.

그 주요 강조점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곱 단계, 혹은 에녹서 2장에서는 아마도 10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언약에는 천국의 층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순수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수준은 다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적 인물을 봅니다. 따라서 모든 주요 신학적 강조점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우리는 레위의 성서인 레위와 관련하여 왕과 제사장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게 종말론적인 초점도 종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침내 우리의 성서 문헌인 열두 족장의 성서에서 레위 자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읽기입니다. 그 중 일부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서에서는 레위가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Levi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의 후손들이 주요 초점이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반드시 묵시적인 예언적 진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직자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글쎄, 레위의 죄.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피어 학살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이야기의 이러한 장식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이 성서가 실제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장식하는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될 거예요. 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고상한 곳이다.

도대체 이런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신부로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저자는 그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살짝 엿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악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과 관련하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이러한 맥락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있어. 그리고 다시 한 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펼쳐지고 하늘의 정보가 전해지면서 레위가 해야 할 일, 결국 하게 될 일이 이미 정해졌음이 드러난다. 그것은 하늘의 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악한 사람들, 즉 세겜을 심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시므온과 함께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디나를 학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언약의 백성에 속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매우 나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주인공인 사라와 레베카에 대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판에 기록되어 레위, 아, 시므온도 그와 함께 정하여졌으나 레위는 실제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집행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리바이의 성격이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와 같은 극악한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그 학살에 대해 신이 정한 이유가 없다면 사제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실제로 하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수임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녀 신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높은 산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더러 레위야 들어가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첫째 하늘에서 들어가 보니 큰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둘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훨씬 더 밝고 찬란했습니다. 거기에도 무한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너는 더 밝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로 올라가면 여호와 곁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하늘 거처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의 맥락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그림자 성전에서 기능하도록 임명된 레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 영역에서도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 번째, 가장 높은 하늘인 쉘메이 하샤마임에 투자되었습니다. 글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 개의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보여진 하늘은 가장 낮은 곳도 어둡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 일부는 2nd Enoch의 레벨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 땅에는 심판 날을 위하여 불과 눈과 얼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쳐두고.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박이 심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저자는 아마도 그 점을 그림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에는 거짓과 벨리아의 영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심판의 날에 임명된 군대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는 거룩함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마도 3개가 넘는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천국은 의인의 무지로 인한 모든 죄를 주님께 섬기며 속죄하는 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늘에는 주님의 임재에 관한 천사들에게 대답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늘에는 왕좌와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 글의 재미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후서에서 우리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등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지각적 복잡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걸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 저자가 그것으로 흥미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동안, 수여식은 천국 영역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신권의 가먼트를 입는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니 흰 옷 입은 일곱 사람이 내게 말하되 보라 이것을 삼가라 일어나 제사장의 두루마기와 의의 면류관과 총명의 흉배와 진리의 옷과 믿음의 패를 입으라 하더라 머리에 쓰는 관과 예언의 에봇입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세 개라도. 첫 번째는 출애굽기 28장인데,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옷이 그가 입는 것과 관련하여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여기에 반항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사야 59장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인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어디를 둘러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되 심판할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그런 것을 입으신다. 이것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특별한 의복과 의복이 메시아의 인물들, 즉 다양한 메시아 인물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잠시 후에 보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레위야, 네 씨는 세 직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것도 약간 모호합니다.

오실 주님의 영광의 표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거기에서 모호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둘째는 신권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니 이는 유다에 왕이 일어나서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 새 제사장직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괄호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기독교적 보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여식 직후에, 의복을 입은 직후에 묘사된 이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들과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종말론적 자료에 관해 말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순교 문학에 빠져들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사야의 순교는 경계가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러 부분, 어쩌면 두 개, 어쩌면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승천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는 이사야를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특징인 일곱 하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사야의 순교에 대해 특별한 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교 부분의 패턴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경문학, 묵시문학, 기원전 2세기 이후 끔찍한 박해의 시기가 바로 이 특정 작품이 적어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합니다. 좋아, 그게 패턴의 일부야. 이것은 이사야의 순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순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참된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언 영역에 우리의 이원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 악한 거짓 선지자. 그들은 이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자는 사탄이 될 것입니다. 벨리알이나 벨리아르가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참 선지자를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충실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순교 문학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의 순교를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의 승천을 모두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뭘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정되는 역사적 맥락? 자,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므낫세 통치 시대에 살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메모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이여.

므낫세는 정말 사악한 왕이었고, 안타깝게도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순교가 전개되면서 히스기야가 아직 살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아직도 그분 앞에 있으며, 그분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당신의 아들 므낫세가 돌아설 것이며 실제로 예언의 목소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말을 들으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분명히 그 말에 따라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벨리알(Belial)이라고도 알려진 벨리아르(Beliar)의 모습도 있습니다. 벨리알(Belial)은 아무런 무가치함을 의미하지 않는 히브리어 용어이지만, 이는 우리의 텍스트 간 시대에 마귀, 사탄의 모습을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에 나타나며, 문맥에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사야를 므낫세에게 고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그 현장의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사이 이사야는 떠난다. 그는 베들레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 모여 있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적 시대착오적인 것들의 매우 흥미로운 조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가 거기에 있고, 엘리야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사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신처는 공개되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보내어 이사야를 붙잡으니 그가 나무톱으로 그를 쪼개니라.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네 번 정도 말합니다. 그는 그를 반으로 봤습니다.

그는 그를 반으로 봤습니다. 그는 나무 톱으로 그를 반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이 본문에서 뚜렷한 의미를 얻습니다. 이 본문은 고대 전통을 보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 그는 사사 등 선지자들을 언급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사자의 입을 막았지만 일부는 톱으로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37절은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통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전통의 일부로 알고 있던 것을 언급합니다. 글쎄, 그것은 유언 문헌과 관련 순교 문헌을 모두 빠르게 살펴보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의 문헌과 함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전체 종교적, 신학적, 철학적 배경과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을 제공합니다. 좋아요, 다음번에는 랍비 문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6회기 유언과 순교문학입니다.